

S(B)MC시장 판도 변화 확실

제일모직 신규 참여... 자동차·전기/전자용 수요도 확대

FRP 복합성형재료인 S(B)MC의 용도가 건축용 자재에서 자동차 범퍼, Door Treem, 전기·전자용 등으로 확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91년 하반기 제일모직의 참여로 시장판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련업체에 따르면, 국내 S(B)MC 수요는 현재 2만5000톤 정도이나, 각 기업들이 수요 창출의 일환으로 자동차부품 및 전기·전자판촉을 강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SMC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국내 SMC시장은 럭키가 90%, 미원·동양FRP·현진공업 등 기타 업체가 10% 점유하고 있다. BMC시장은 지난 91년 2/4분기까지 럭키·강남정공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제일모직이 시장에 참여한 지난 91년 3/4분기 이후 시장점유율이 변화, 강남정공과 럭키의 시장점유율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4/4분기 이후에는 강남정공·럭키·성남화학·제일모직 등이 거의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품용 대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각축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일모직이 BMC시장에 참여한 91년 3/4분기 이후 시장점유율이 변화된 것은, 제일모직이 우수한 기술진 및 삼성건설·삼성전기 등 계열사 수요처를 확보, 생산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표> 국내 SMC 용도별 수요전망

(단위:톤, %)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연평균성장률
U B R	12,300	13,700	15,200	16,400	17,600	10.7
물 탱 크	1,350	1,550	1,620	1,660	1,690	7.5
육 조	1,710	1,850	2,000	2,140	2,280	9.2
자 동 차	1,680	1,940	2,250	2,490	2,680	14.0
건설중장비	520	600	700	770	840	14.9
상 용 차 등	1,160	1,340	1,550	1,720	1,840	13.7
합 계	17,040	19,040	21,070	22,690	24,250	10.3

분석되고 있다.

제일모직의 급부상으로 기존 BMC시장을 주도해온 럭키는 올초부터 무수축 BMC 개발을 추진하는 등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강남정공은 BMC 품목 가운데 약 25%를 자동차부품에 적용한다는 계획아래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미원은 자동차부품의 그레이드를 다양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93년 국내 S(B)MC시장 성장률은 10% 미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자동차부품이나 산업용자재, 전기·전자부품용 대체노력으로 실제 성장률은 1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SMC 수요는 93년 1만7040톤, 95년 2만1070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용도별 수요는 93년 UBR 72.2%, 물탱크·육조 17.9%, 자동차 9.9%로 자동차분야가 미미하나, 95년은 UBR 72.1%, 물탱크·육조 17.2%, 자동차 10.7%로 자동차부품용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2/12/1>